

만기 다가오는 '고금리 단기예금' 금리노마드족 저축은행 예의주시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인상 속도 중소형사 중심 자금수신경쟁 예고 내달 고금리 상품 재등장 가능성 "단기 보다 중장기 상품 늘릴 듯"

다음달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이 또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자금조달 경쟁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시한 고금리 단기예금(6개월)의 만기도래를 앞두고 있어서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곳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물)의 평균 금리는 연 3.95%다. 이달 들어 0.08%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조달 경쟁 여파로 수신 금리 인상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의견이다.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내달 고금리 예금 상품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예금금리는 연 4.5%를 지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돌파하는 수준의 예금 상품 등장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형사 중에는 페퍼저축은행의 '페퍼스회전정기예금' 및 '회전정기예금'이 연 4.5%를 제공한다.

이같은 업계 전망의 배경에는 고금리 단기예금의 만기 도래가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 예금이 빠져나간 만큼 자금수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권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단기예금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했다. 당시 전국 저축은행 단기예금의 평균금리는 연 4.2%까지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고금리 예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OK·웰컴·페퍼·상상인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이 연 4.4~4.5%의 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인지도가 낮은 중소형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방법으로 뭉치돈을 운용하고 싶은 '금리 노마드족'이라면 내달 저축은행중앙회 예금 조회를 수시로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6개월짜리 단기예금에 고금리 적용 여부에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통상 금융사는 3년 이상의 중장기 예금 비중을 늘리는 게 운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1년물 및 2~3년물 예금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 예금상품 판매는 소비자에게 대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만큼 중장기 예금 판매를 늘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수준의 정기 예금은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당국의 엄포에 시중은행 또한 고금리 예금 출시를 꺼리고 있다. 통상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1~2%p 높은 예금 금리 격차를 유지한다. 시중은행이 조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축은행 또한 공격적인 조달에 나설 확률은 드물다. 저축은행의 리테일(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주춤하고 있어서다.

조달 경쟁이 저축은행권 내부의 '각축전'이 예상돼 금리는 연 5% 초반에 그칠 것이라 분석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1분기 저축은행권의 적자가 예고되는 만큼 공격적인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게릴라 마케팅(Guerrilla Marketing)식 예금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방성빈 BNK 부산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이 본점 1층 로비의 열린 휴식공간인 'B:FOREST'에서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BNK부산은행

방성빈 부산은행장, 기업문화 혁신 앞장

찾아가는 결재, 전자보고 등 조직내 소통·유연성 강화 결실

BNK부산은행은 방성빈 은행장이 취임 후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기업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초 부산은행 제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방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부산은행은 취임 2개월이 지난 지금 방 은행장의 노력이 조직 내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은행장이 본부 부서를 직접 방문해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담당자와 소통하고 그 자리에서 결재하는 '찾아가는 결재'와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소에 구애 없이 보고받는 '전자보고'가 있다.

찾아가는 결재와 전자 보고는 조직 내 소통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 은행장의 노력에서 시작됐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회의·음주문화 개선 ▲ESG 실천 문화 확대 ▲도전하는 문화 확산 등 바른 기업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경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 은행장은 지난 19일 부산은행 본점 1층 로비의 열린 휴식 공간인 'B:FOREST'에서 '환경을 위해 애쓰지(ESG) 날'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는 행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블라인드 채용 시범 운영... 인지도 아닌 양질 일자리 제공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여 구인기업 채용 지원금 제공

'2023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2일과 23일 이틀간 개최된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23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B우수기업, 유관기관의 우수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블라인드 채용관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자는 기업의 인지도가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아닌 직무, 복지, 성장가능성 등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없이 구인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박람회에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관 ▲박람회 참가기업의 채용설명회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취업특강·설명회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직업심리검사관 ▲군간부 채용관 ▲직업체험관 ▲창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KB소호 컨설팅관을 운영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등 금융비용 부담해택을 제공한다. 정규직원 채용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기업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최대 1.3%포인트(p)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구직자 600명은 면접지원금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20만명 개인 신용정보 팔아치운 대부중개 플랫폼, 경찰 수사의뢰

금감원, IT전문가 투입 합동점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무단 유출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고객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대부중개업체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인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중개는 개인 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외 조치했다.

또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할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

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합동 점검받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관리를 지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동 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구남영 기자

수협은행, ESG경영 일환 해양환경 보호예금 선포

Sh해양플라스틱제로! 법인MMDA 가입만으로 친환경 실천기업 인정

Sh수협은행이 법인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상품을 출시했다.

Sh수협은행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해양환경보전 공익상품인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 법인MMDA'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법인전용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전액 수협은행 부담으로 해양환경보전과 ESG사업 지원기금으로 출연한다.

상품은 예치금액에 따라 이자를 차등지급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활용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면 판매 한도 없이 가입 가능하다. 상품 가입만으로도 해양환경보전사업 간접 지원 등 친환경 실천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도입 등 사회·경제 전반에서 착한 기업을 우대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은 ESG 측면에서 해양환경 공익상품 고유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기업고객의 가치제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산 기자